

# ‘일요-’系 語彙의 사용 확대에 대하여\*

윤 석 민

## 1. 序 論

### 1.1 문제 제기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한 변화는 언어구조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언어구조와는 상관없이 언어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한 언어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은 그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어떤 어휘의 모습과 관련하여 그 어휘의 의미나 기능 및 구조 등의 변화를 그 어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작업을 語源論이라고 하며 이 작업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語源에 대한 관심은 言語變化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한 많은 작업들은 주로 그 변화의 연원이 아주 오래된 어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시작된 어휘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

---

\* 이 글은 한국언어학회 1994년도 봄 연구회에서 구두 발표되어 토론되었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글이다. 이 자리를 빌려 논의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인다. 대부분 어원론 하면 주로 近代國語 혹은 中世國語 아니면 그 이전의 국어의 모습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을 생각한다. 물론 오래 전의 모습에 대한 궁구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모습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지레 짐작해 버리고 마는, 그리 오래지 않은 어휘들 중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일년 이년의 시간이 흘러 백년 이백년이 되고 또 천년 이천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록 그 연원이 짧은 것이더라도 이것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sup>1)</sup>

이 글은 바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연원이 그리 깊지 않다고 생각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일요-'系 語彙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그 정확한 모습이 규명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sup>2)</sup> 이에 대한 각 사전의 처리도 일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어휘에 대하여 분명한 기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똑같은 단어가 사전마다 달리 대우받고 있거나 같은 사전이라 할 지라도 이들 동일 계열의 단어들에 대한 처리가 매우 상이한 상태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sup>3)</sup>

1) 김방한(1990:55-56)은 어원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낱말의 일정한 기간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일정한 기간은 수십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년이 될 수도 있어 그 한계가 미리 정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 주는 것은 모두 중요한 어원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 절(1.2) 참조.

3) 이 글은 필자가 방송에서 우연하게 듣게 된 한 단어 '금요여인'에서 비롯한다.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정확히 '금요'의 뜻을 몰랐던 것이다. 물론 곧바로 이 단어의 뜻이 '금요일'을 나타내는 것임을 맥락(context)을 통하여 알게 되었지만 정작 '금요여인'과 같은 구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러한 궁금증은 이미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월요병'과 같은 단어의 존재를 생각할 때 더욱 커졌다. 어째서 '금요여인'과 같은 것은 부자연스러운데 '월요병'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더구나 '금요'에 대한 정보가 사전마다 달라 어느 곳에서는 '금요일'과 동의어로 보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생략형이라고도 하며 어느 곳에서는 아예 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전에서도 이 같은 구성이 보이는 경우에서로 차이나는 기술을 보여 일관성이 없다.

## 1.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현재 ‘일요-’식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가. 일요로동, 일요병, 일요신문, 일요작가, 일요특집극, 일요판, 일요학교, 일요화가, 월요병, 월요이야기, 화요학습, 화요회, 수요강연, 수요강연회, 목요도(목요섬)<sup>4)</sup>, 금요드라마, 금요로동, 토요학습, 토요예배.
- 나. 일요교실, 일요다큐멘터리, 일요특강, 일요명화, 일요스포츠, 일요큰잔치, 일요특선, 일요예술무대, 일요포럼, 월요경제, 화요데이트, 수요불당, 수요스페셜, 수요시위, 수요일상탈출, 수요특집, 수요컴퓨터동호회, 목요복싱, 목요페미니즘, 금요골프, 금요시민미술강좌, 금요여인, 금요뉴스, 금요특선, 토요객석, 토요공개생방송, 토요골프, 토요영화, 토요특집 등.

(1가)는 현재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다.<sup>5)</sup> 그러나 이들이 등재되어 있는 모습은 사전마다 각기 다르다. 여기서는 사전에 한번이라도 등재된 것은 다 모아놓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많은 관련단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요(월요, 화요, 수요, 목요, 금요, 토요)’<sup>6)</sup>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도 있고, 있어도 이중의 일부만 기술되고 있는 것도 있는 등 일관성있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sup>7)</sup> 또한 (1나)는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1가)의 단어들과 비교해 볼 때 사전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국어의 造語方法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sup>8)</sup>

4) 이들은 서로 동일한 것을 사전에 따라 달리 표제항으로 등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끝의 토레스해협에 있는 작은 섬으로 진주조개 채취지역으로 유명한 곳. 영어명 Thursday Island.

5) 여기서 대상으로 한 사전들은 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전을 말한다.

6) 앞으로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일요’로서 이들을 대표하기로 한다.

7) 이런 기술의 비통일성은 2.2 참조.

8) 이들 어휘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규명하는 것은 현재의 사전들이 보이고 있는 이들 어휘들의 기술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1가)와 (1나)의 경우에 있어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데 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 사전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사전의 검토과정에서는 단지 '일요'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것과 관련하여 국어의 요일(曜日) 관련 어휘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一週日이란 시간의 단위를 설정하고 一週日의 하루하루에 각각 이름을 정한 것이 요일이라 한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요일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일주일의 단위로 사용되기 이전에 '일요' 등이 의미했던 바는 무엇이었는가 등도 사전의 검토를 통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다음 우리는 '일요'-系 語彙들의 공시적인 분석의 여러 가능성들을 통하여 이들이 과연 우리 국어 속에서 어떠한 자격을 지니는 것인가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또다른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들 어휘들의 모습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 2. 本 論

### 2.1 '일요'-系 語彙의 辭典情報 검토

여기에서는 요일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전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물론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우리가 제기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실마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전들은 다음과 같다.

- (2) 가. 조선어사전 (문세영, 1938; 대체각 영인, 국어국문학회총람 44, 45권)  
표준조선말사전(이운재, 1948)
- 나. 일한한일대사전(정인섭, 대영출판사, 1976)  
조선어대사전(대판외국어대학교조선어연구소 편, 각천서점, 1986)
- 다.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73; 도서출판아리랑)

---

관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영인)  
 현대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한자말사전(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9)  
 조선어대사전(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92)  
 라.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저, 중보판, 1986)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의 3인, 1991)

여기서 살펴본 사전은 ‘일요’ 등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초기의 것들에서 부터(2가) 일본어와 관련되어 기술된 사전(2나), 북한의 사전(2다)와 비교적 최근의 사전들(2라)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일요-’系 語彙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라 생각된다. (가)의 사전들은 이들 어휘의 초기의 모습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할 것이며 (나)의 사전들은 특히 이들이 일본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의 사전들은 특히 외래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전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라)의 사전들은 현재 우리의 이들 어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 사전에서 우리는 우선 다음의 것들에 주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3) 가. 칠요, 일요~토요, 요일, 칠요일, 일요일~토요일 등의 기술
- 나. ‘일요일’ 등의 분석
- 다. ‘일요’ 등과 ‘일요일’ 등 및 ‘일’ 등의 관계
- 라. 관련 복합어의 존재
- 마. 사전 기술의 특이성

(3가)는 일주일의 각 명칭과 관련된 단어들 중 어떤 것이 標題語로 등재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며 (3나)는 ‘일요일’ 등이 어떻게 분석되는가 하는 것을 등재된 標題語의 모습을 통하여 살피려는 것이다. 특히 이는 그것을 복합어로 생각하는 이상,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방식을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3다)는 각 사전에서 ‘일요’ 등이 ‘일요일’ 등 및 ‘일’ 등과 어떤 관계로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

이다. 그리하여 이들 사이가 同意 關係인지 아니면 省略의 關係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라)는 '일요' 등이 국어에서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것과 합하여 쓰이는 것이 분명하다면<sup>9)</sup> 그런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단어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마)는 각각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서로 배경을 달리하는 사전들 사이의 기술의 차이를 살피므로써 '일요' 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1.1 조선어사전(1938), 표준조선말사전(1948)

조선어사전(1938)에서 우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칠요'에 대한 설명이다. '칠요'를 일, 월에 화, 수, 목, 금, 토의 오성(五星)을 합한 것이라고 하고 이들을 일주일에 배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원래의 陰陽五行論적 용법에서 '요일'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비록 '일요' 등이 '칠요'의 설명 속에서 나타나지만 標題項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일요' 등의 용법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요'와 '일요일'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또 여기서는 '일요일'에 대하여 '일요-일'이라고 표제항을 등재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일요일'이 '일요'와 '일'로 분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이 사전에서는 각 요일의 설명에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 남한의 사전들과 동일하나<sup>10)</sup> 다른 요일의 기술에 있어 일요일부터 계산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다르다.(표1 및 표4 참조)

9) 국어에서 '일요' 등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23 참조.  
10) 앞의 (2라)의 사전들을 말한다.

<표 1>

| 사 전           | 칠요/칠요일/요일에 대한 설명   | 일요 및 일요일   | 관련복합어  |
|---------------|--|--|--|
| 조선어사전 (1938)  | 칠요(七曜)(명)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오성(五星)을 합한 이름. 이것을 일주일에 배당하여 일요, 월요, 화요, 수요, 목요, 금요, 토요일라 한다.<br>cf.요일: 없음   | 일요 등:없음<br>일요-일:칠요의 하나.토요일의 다음날<br>월요일:일요일의 다음날<br>화요일:일요일에 들췌되는 날   | 없음   |
| 표준조선말사전(1948) | 칠요(七曜)(이)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오성을 합한 이름. 이것을 주일에 배당하여 일요, 월요, 화요, 수요, 목요, 금요, 토요일이라고 함.<br>cf.요일:없음 칠요일:없음 | 일요:일요일(준말)<br>cf.월요, 화요, 목요, 금요, 토요일<br>일요-일:칠요의 하나.<br>cf.월요일, 수요일 화요일:칠요의 하나.일요일에서 세째되는 날.<br>cf.금요일 목요일:일요일에서 다섯째 되는 날.<br>토요일:일요일로부터 일곱째날. | 이들 단어의 표제항에는‘(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이 한자어임을 나타 낸다.’ <sup>13)</sup> |

표준조선말사전(1948)은 무엇보다도 ‘일요’ 등의 설명이 처음으로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sup>12)</sup> 즉 이것들을 ‘일요일’ 등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비록 간단하지만 ‘일요일’과 ‘일요’의 관계에 대한 첫번째 기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 두 사전은 아직 ‘요일’에 대한 기술이나 ‘칠요일’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전자의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일주일의 각 날에 대한 분명한 시간적 단위로서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11)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는 ‘(표시가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도 나타낸다고 하고 있으나 한자어의 경우 그 다음에 ( ) 속에 해당 한자를 기록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그 다음에 한자를 가지고 있다. 단 여기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를 가능한 한 생략한 것이다.참고로 이 사전에서는 소리의 길고 짧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장음에는 해당 글자 위에 ‘-’를 긋고 있다. (예, 동사)  
12) 다만 ‘수요’(水曜)만이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전체적인 기술태도로 보아 ‘수요’가 없는 것은 사전편찬상의 실수라고 생각된다.

하겠다. 후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일요'와 '일요일'이 설명되는 것을 보아 '칠요'와 관련하여 '칠요일'이 설명될 법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칠요'만으로 각각의 요일을 총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이 기준이 되어 '일요'가 설명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칠요일'이 '칠요'에 우선하여 설명되어야 할 듯하다. 사전상의 기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도 아직 이들이 요일과 관련하여 확실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요일' 등의 기술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sup>13)</sup>

### 2.1.2 일한한일 대사전(1976), 조선어대사전(1986)

이 사전들은 국어의 모습을 일본어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요'와 '일요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국어의 '일요일' 등이 서양의 책력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그것은 일제시대 일본어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일한한일 대사전(1976)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요'(曜)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sup>15)</sup> 이는 다른 사전에서는 없는 것으로서 '요' 하나만으로는 기능할 수 없는 국어의 경우를 생각할 때 매우 이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국어를 일본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본어를 국어로 설명한 데 보인다는 사실은 일본어에서의 '요'와 한국어에서의 '요'가 지니는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차이에 의하여 이 사전에서는 '요일'도 '요-일'(にち-よう)식으로 복합어로 보고 있다. 역시 국어의 직관으로는 불가능한 분석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된 복합어도 일본어를 국어로 설명하는 경우에만 '일요학교'가 보인다.

조선어대사전(1986)에서는 무엇보다도 '월요'와 '월'의 관계가 주목된다.

13) 요일과 관련한 기술들이 각 사전내에서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밖의 다른 사전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4)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2.3.2. 참조.

15) 실제로 대부분의 일본어 사전에도 '요'가 독립된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다.



‘월요’를 ‘월요일’의 생략형으로 보는 데는 다른 대부분의 사전의 경우와 같으나 ‘월’도 ‘월요’의 생략형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 다른 요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이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 역시 ‘월요’가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는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우기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화요일’의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화요일’이 日本語의 借用語라는 기술이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화요-일(名)火曜日.(省略)화요(火曜).화(火) \* 日本語からの借用 現在の中  
國語は「星期二」

비록 다른 요일의 설명에는 보이지 않으나 요일의 명칭과 관련하여 이들이 일본어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배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보인다. 즉 여기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중요어는 보통의 다른 표제어보다 크고 두껍게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이 사전에서는 이를 親語라 함)에서 파생된 단어(이 사전에서는 이를 子語라 함)는 한 칸 안으로 들여 쓴다. 그런데 요일에 대한 기술에서 이런 표제어의 배열에 있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네 개는 큰 글자로 되어 있고 일요일과 수요일은 보통 글자로서 각각 일요와 수요보다 한 칸 안으로 들어가 있다. 목요와 목요일만 동일하게 보통 글자에 모두 첫칸부터 쓰여 있다. 이중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끄는 것은 두번째 경우이다. 일요일과 수요일이 한칸씩 안으로 들여져 있다는 것은 이들이 각각 ‘일요’와 ‘수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어에서 이러한 생각은 인정되기 어렵다. 국어에서는 오히려 ‘일요일’이 ‘일요’보다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에서 ‘일요’ 등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어의 직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에서는 관련되는 복합어들도 특히 많이 보인다.

&lt;표 2&gt;

| 사 전                | 칠요 칠요일 요일에 대한 설명  | 일요 및 일요일   | 관련복합어                    |
|--------------------|---|--|--------------------------|
| 일한 한일<br>대사전(1976) | 고려(高麗) 1반씩임. 빛남 일 천제(天)에 일(日)로 일의<br>총칭: 칠요(七) 3 일. 월과 하나.<br>화, 수, 목, 금, 토의 오성을 일주일토요일의 다음날<br>간에 분배한 총칭                                     | 일요 및 일요일   | 일요일(日曜日)<br>이(日) 요(日) 학교 |
| 조선어대사전<br>(1986)   | 요일(명) 일,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의 생략<br>토의 칠일 <sup>16)</sup><br>칠요(명) 1 칠요일의 생략<br>일(日), 월(月)과 오성(五星)<br>칠요일(명) 일주간(一週間), (생)월(月)<br>락)칠요(유)칠치(七值) | 일요:일요일의 생략<br>일요-일:일요<br>일요일(생략)일요, 일<br>월요일:월요일<br>월요일(생략)월요일의 생략(생략)<br>월요일(생략)월요일<br>월요일(생)월요일<br>월요일(생)월요일<br>월(月)<br>화요일->화요일 <sup>17)</sup><br>화요일:화요일(생략)화요일<br>화. cf.목요일<br>수요일:수요일<br>수요일:수요일, 수요일(생략)<br>수(水)<br>토요일:(토요일의 생략)토요일<br>토요일:토요일(생략)토요일<br>토 | 일요작가<br>일요화가<br>일요학교     |

16) '월요일'을 '월요일의 생략'과 같이 기술한 것을 보면 이것 역시 '화요일의 생략'이라고 기술할 법하다. 이는 사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3.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1981), 한자말사전(1989), 조선어대사전(1992)

북한사전들을 검토해보면 시간에 따라 요일에 관련된 기술들이 좀더 정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조선문화어사전(1973)에서는 ‘요일’<sup>17)</sup>이나 ‘칠요’, ‘칠요일’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고 관련되는 복합어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일요’ 등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sup>18)</sup>, 이 사전이 문화어운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점을 생각할 때 ‘일요’의 용법이 문화어적이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sup>19)</sup> 그러나 문화어운동이 약화되고 보다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나온 현대조선말사전(1981)<sup>20)</sup>에서는 비록 ‘칠요’나 ‘요일’<sup>21)</sup>이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칠요일’에 대한 설명이 있고 관련되는 복합어들도 보인다.(화요학습, 수요강연 등) 그리고 ‘일요’ 등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이들을 ‘일요일’ 등에 대한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sup>22)</sup> 한자말사전(1989)는 ‘칠요’에 대하여 ‘칠요일’과 동의어로 기술하고 있으며 ‘일요’ 등도 일관되게 ‘일요일’ 등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요일’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고 있고 ‘칠요’를 ‘칠요일’의 준말이 아니라 같은말(同義語)로 처리한 데서 통일성을 잃고 있다고

- 
- 17) ‘일요일’ 등의 설명에서 ‘요일의 하나’와 같은 기술이 보이는 것을 보면 ‘요일’ 역시 표제항으로 처리될 것이 기대되지만 이 사전에서는 ‘요일’이 표제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사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겠다.
  - 18) ‘토요’에 대해서만 ‘토요일의 준말’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일관된 기술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요’ 등이 등재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등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준다고 하겠다.
  - 19) 문화어운동이란 평양말을 중심으로 다듬어진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를 각 사회분야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영어나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나 외래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고유어를 중심으로 우리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체의 언어리론”과 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고영근(1988) 참조.
  - 20) 이는 문화어운동의 영향을 받은 현대조선말사전(1969)의 제 2판으로서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 21) ‘일요일’ 등의 설명에 ‘요일’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요일’이 표제어로 등재되었어야 할 것이다.
  - 22) ‘목요’에 대해서만 ‘목요(명)= 목요일’과 같이 같은말(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조선어대사전(1992)는 다른 사전에 비하여 가장 정밀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일'에 대한 기술도 보이고 '일요' 등에 대한 처리도 일관된다. 그러나 여전히 '칠요'와 '칠요일'을 같은 말로 보고 있는 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사전들에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일주일의 각 요일을 기술하는 경우 그 기준을 월요일로 잡는 것이 그 하나다. 즉 남한의 다른 사전들이 모두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차이나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요일' 등에 대한 분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제항에 복합어인 경우를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제항 '일요일'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없이 그냥 붙여 씀으로써 이것을 단일어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어로 본다는 것인지 복합어라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sup>23)</sup> 또 하나 관련되는 복합어들도 남한의 사전들과 완전히 다르다.(표3 참조) 이것이 북한에서는 남한의 다른 사전에 보이는 관련 복합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언어이론에 의해 강제적으로 거부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그 어느 경우든 남한에서 사전에 등재된 것이 외래어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23) '일요'라는 표제항을 근거로 '일요·일'로 분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요' 등이 있어도 '일-요일'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경우 참조.(2.2.4 표4)

24) 이 사전의 뜻풀이에는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요일'에 대한 기술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요일(명) 이레씩 헤아리는 한 주의 매 날을 이르는 단위 ㉠월- / ㉡오늘은 무슨--이요? [曜日] (9)(밀줄-필자)

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밀출친 부분인데 이는 이 단어의 사용 빈도수에 대한 것으로 이 사전에는 가장 높은 '하다'(46, 612)에서부터 빈도수 2에 이르기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빈도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요'식의 단어에 아무런 빈도수도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단어의 쓰임이 매우 간헐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3>

| 사 전               | 칠요/칠요일/요일<br>에 대한 설명   | 일요 및 일요일  | 관련복합어  |
|-------------------|--|---|--|
| 조선문화어사<br>전(1973) | <p>칠요(七曜):없음<br/>                     요일:없음<br/>                     ↳그러나 토요일(명)<br/>                     토요일의 준말</p>  | <p>일요,월요,화요 등 없음.<br/>                     일요일:요일의 하나.월요일부터 일<br/>                     께째 되는날: 공일.<br/>                     월요일:주일의 첫째되는 날.<br/>                     화요일(명):요일의 하나.월요일 다<br/>                     음날.<br/>                     수요일:월요일로부터 셋째되는 날.cf<br/>                     금요일<br/>                     목요일:요일의하나.월요일부터 넷째<br/>                     날</p>   | <p>관련단어<br/>                     없음<br/>                     토요일</p>   |
| 현대조선말<br>사전(1981) | <p>칠요일(명)월요일,화<br/>                     요일,수요일,목요일,<br/>                     금요일,토요일,일요일<br/>                     을 통털어 이르는<br/>                     말.<br/>                     칠요: 없음.</p> | <p>요일:없음.<br/>                     일요일:요일의 하나.월요일로부터 일<br/>                     께째 날<br/>                     월요일:주일의 첫번째 날.<br/>                     화요:화요일의 준말.cf.수요<br/>                     화요일:요일의 하나.월요일 다음날.<br/>                     수요일:월요일로부터 셋째되는 날.<br/>                     목요:=목요일<br/>                     목요일:요일의 하나.월요일로부터<br/>                     넷째날.(같은말)목요.<br/>                     금요:=금요일<br/>                     금요일:월요일로부터 다섯번째 되<br/>                     는 말.(같은말)금요.<br/>                     토요:토요일의 준말.<br/>                     토요일:월요일부터 여섯째 되는 날.</p> | <p>화요학습<br/>                     수요강연<br/>                     수요강연회<br/>                     금요로동<br/>                     토요학습</p> |

|                  |  |   |   |
|------------------|--|---|---|
| 한자말사전<br>(1989)  | <b>칠요:</b> 없음<br><b>요일:</b> 없음   | <b>월요-일요:</b> 모두 '-요일의 준말'<br>식의 기술<br><b>월요일:</b> 요일의 하나, 주일의 첫번째 날<br><b>화요일:</b> 요일의 하나, 월요일의 다음날<br><b>수요일:</b> 요일의 하나, 월요일로부터 셋째 날 | 금요일, 동<br>토요일, 습  |
| 조선어대사전<br>(1992) | <b>요일(명):</b> 이레씩 헤이리는 한 주의 매 날을 이르는 단위. <sup>25)</sup><br><b>칠요(명):</b> 칠요일<br><b>칠요일(명):</b>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통털어 이르는 말. = 칠요. | <b>일요:</b> 일요일의 준말. cf. 월요, 화<br><b>일요일:</b> 한주일의 일곱째 날.<br>곧 토요일의 다음날. cf. 화요일<br><b>월요일:</b> 한주일의 첫째날                                 | 일요일, 동<br>요, 수, 목, 요<br>금, 토, 요,<br>수요일, 목<br>일, 금, 일, 토<br>요일<br>금, 요, 동<br>토, 습 |

#### 2.1.4 새우리말큰사전(1986), 우리말큰사전(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이 사전들에서의 일주일의 각 요일과 관련된 기술은 매우 정밀하다. '요일', '칠요/칠요일', '일요/일요일' 등의 기술이 모두 보이며 '칠요'와 '칠요일', '일요'와 '일요일' 등의 관계에 대한 기술도 사전마다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전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새우리말큰사전(1986)에서는 '칠요'와 '칠요일', '일요'와 '일요일' 등의 관계를 준말과 본딤말의 관계로 보고 있는 데 대하여<sup>25)</sup> 우리말큰사전(1991)에서는 이들의 관

25) 다만 '수요'만 "수요(명)=수요일"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는 동의어 표시로서 다른 것과 달리 '수요'와 '수요일'의 관계를 준말과 본딤말의 관계로 보지 않고 동의어의 관계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수요일'의 기술에 있어서도 다른 것과

계를 한뜻말(同義語)의 관계로 처리하고 있다.”<sup>26)</sup> 전자가 지금까지의 다른 사전의 경우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후자의 사전은 동의어로 처리함으로써 ‘일요’와 ‘일요일’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하나가 다른 하나로 준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금성판 국어 대사전(1991)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일부 명사 앞에서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동의어로도 보지 않고 그렇다고 준말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7)</sup> 단지 ‘줄여 이르는 말’이라는 이상한 표현은 ‘일요’와 ‘일요일’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준말로 처리하기도 적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동의어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아마도 이들 ‘일요’ 등의 단어와 ‘일요일’ 등의 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심의 결과인 듯하다. 사전의 올바른 기술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다른 사전과 다른 점이 또하나 있다. 지금까지의 다른 사전들은 ‘일요일’을 복합어로 보아 이를 표시하는 경우 모두 ‘일요-일’과 같은 기술을 보이고 있다. 즉 ‘일요’와 ‘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요일’식의 기술을 보이고 있다. ‘일요일’은 일차적으로 ‘일’과 ‘요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새우리말큰사전이나 우리말큰사전에서도 그 실마리를 볼 수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금요일’의 기술을 보면 다른 요일들과는 달리 표제어가 ‘금-요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전에서는 복합어인 경우 처음요소의 아래에 한칸 안으로 들여쓰게 되어 있으나 ‘금요일’만은 ‘금요’와 동일하게 첫칸부터 기술되고 있다. ‘금요’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후자의 사전에서도 다른 요일의 기술과 달리 ‘금요일’의 경우는 ‘금-요일’로 표제어를 삼고 있다.

---

달리 준말에 ‘수(水)’만 기술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수요’가 동의어로 처리되었음을 말한다. 왜 이런 기술이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기가 어렵다. 사전편찬상의 착오가 아닌가 한다.

- 26) 그러나 이 사전에서도 관련되는 단어인 ‘토요특전미사’를 ‘토요일특전미사’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토요’와 ‘토요일’이 한뜻말(동의어)로 처리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하겠다.
- 27) 이 사전에서 준말의 경우는 분명하게 (준)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면 ‘일요’를 ‘일요일’의 준말로 본 것이 아님을 확실하다.

&lt;표 4&gt;

| 사 전                  | 칠요/칠요일/요일에 대한 설명  | 일요 및 일요일  | 관련복합어   |
|----------------------|---|---|---|
| 새우리말큰사전<br>(1986중보판) | <p>요일(명)일(日),월(月)의 양요(兩曜).여기에 화,수,목,금,토의 오성(五星)을 더한 칠요의 각칭.</p> <p>칠요(명)①-&gt;칠요일<br/>②일,월과 오성(화,수,목,금,토)</p> <p>칠요일(명)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토요일의 통틀어 일컬음.유대교 및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의 역서에 쓰기를 시작하였음.칠치.(준)칠요</p> | <p>일요(명)-&gt;일요일</p> <p>일요-일(명)한주(칠요일)의 첫째가 되는 날.토요일의 다음날.(준)일,일요.</p> <p>월요~토요:일요의 기술방식과 동일.</p> <p>월요일(명)칠요의 하나.일요일의 다음.(준)월요."<sup>28)</sup></p> <p>화요일(명)7요일의 하나.일요일로부터 세째 날.(준)화, 화요.</p> <p>수요일(명)칠요일의 하나.일요일로부터 네째 되는 날.수요.(준)수.</p> <p>목요일(명)칠요일의 하나.일요일로부터 다섯째 날.(준)목, 목.</p> <p>금요일(명)칠요일의 하나.일요일로부터 여섯째가 되는 날.목요일의 다음날.(준)금, 금요.</p> <p>토요일(명)칠요일의 제일 끝날.곧 일요일로부터 일곱째 되는 날.(준) 토요.</p> | <p>일요작가</p> <p>일요학교</p> <p>일요화가</p> <p>토요예배</p> |
| 우리말큰사전<br>(1991)     | <p>요일(이)일주일의 날짜를 나타내는 말.</p> <p>칠요(이)=칠요일</p> <p>칠요일(이)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한)칠요,칠치.</p>  | <p>일요(이)=일요일.</p> <p>일요-일(이) 한주의 첫째 되는 날 (준)일 (한)공일,일요.</p> <p>월요~토요:모두 '일요'식 기술.</p> <p>월요일(이)칠요일의 하나.일요일로부터 둘째되는 날.cf.화요일~토요일도 동일.</p>  | <p>일요작가</p> <p>일요판</p> <p>일요학교</p> <p>일요화가</p>  |

28) 준말로 '월요'만 보일뿐 '월'(月)이 없는데 이는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추가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土)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p>국어대사전<br/>(1991)</p> <p><b>요일</b>(명)월, 화, 수, 목, 금, 토, 일<br/>에 붙어 1주일의 각 날을 나타내는 말.</p> <p><b>칠요</b>(명)칠요일의 준말</p> <p>칠요일(명)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총칭. (준) 칠요</p> | <p><b>일요</b>(명)((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이어))'일요일'을 줄여 이르는 말.<br/>예.-특집극</p> <p><b>일-요일</b>(명)칠요일의 첫째날.<br/>공일, 성기</p> <p>월요-토요:일요의 기술방식과 동일</p> <p><b>월요일</b>:칠요일의 하나.일요일의 다음날. 화요일의 전날</p> <p><b>화요일</b>:칠요일의 하나.일요일로부터 셋째날.cf.수요일~토요일</p> | <p>일요특집</p> <p>일요병</p> <p>일요신문</p> <p>일요작가</p> <p>일요학교</p> <p>일요화가</p> <p>일요관</p> <p>월요병</p> <p>월요이야기</p> <p>화요회</p> <p>목요일</p> <p>금요드라마</p> |
|---|---|--|

## 2.2 '일요'-系 語彙의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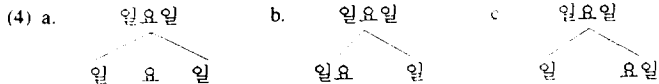
앞에서의 사전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일요'와 '일요일'의 관계가 단순히 동의어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생략의 관계로 보기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같이 확인된 문제점들을 現代國語의 共時的인 意味分析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즉 공시적인 언어사용의 직관에 의존하여 '일요일'을 분석할 것이며<sup>29)</sup> 기존에 사용된 단어들과의 사이에 생기는 설명상의 불일치를 借用일 가능성을 제시하여 해결해 보려고 한다.

### 2.2.1. 共時的 分析

'일요'와 '일요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생략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전적 정보만으로도 이들 사이의 관계를 생략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생략

29) 편의상 '금요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도 동일한 분석결과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과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는 생략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일요일'의 생략형으로 '일'(日)의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일요일'의 생략형이 '일요'라고 하는데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것이다. '일요일'을 복합어라고 할 때 이들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 이것의 생략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복합어에서 생략이 나타날 경우 그 단어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일차적인 직접구성성분 중의 하나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승합버스->버스, 고속버스 >버스', 안녕하다->안녕  
 등과 같다. 그렇다면 '일요일'의 경우도 그 생략의 방향은 성분분석상의 일차적인 직접구성성분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 기대된다. '일요일'의 성분분석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4a)의 경우 '일요일'이 각각 '일(日)'과 '요(曜)', '일(日)'로 분석된다는 것이나 이러한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의 言語的 直觀에 기대어 볼 때 '일요일'이 이처럼 각각의 세 형태소가 일차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30) 이 경우는 물론 전자의 '승합버스->버스'로의 생략에 따른 의미변화와는 성격상 구분되는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생략이 언중들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나 이 경우는 아직 언중에 의해 생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의 줄어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고속버스'가 '버스'로만 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만으로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이 그러한 경우이다.

화자1: 이번 고향갈 때 어떻게 갈 거니?

화자2: 응, 고속으로 갈 거야.

31) 인사말의 경우 가능하면 그 길이를 줄이는 것이 보통이다. 단어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예는 실제로 문장의 일부가 전체 인사문을 대신하는 경우이다. 실제 : ) 안의 부분은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생략된다.

(그럼 이만 가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요'가 국어에서 혼자서는 쓰일 수 없으며 언제나 '요일'의 형태로 이루어진 다음에만 쓰이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위처럼 각각 독립된 하나의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4(b)의 경우는 우리가 '일요'라는 형태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분석 형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앞에서 살폈던 많은 사전들에서 위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분석이 주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듯이(특히 2.2.4 참조) 만약 '일요'가 '일요일'의 동의어라면 이러한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요(이미 '일요'만으로 일요일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을 덧붙이는 것은 쓸 데 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만약 준말이라면 '일요'는 위의 분석상 생략된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일'(日)의 의미인 '하루'(一日)가 덧붙여져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一週日이라는 시간적 구분의 각 하루 하루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각각의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가 국어에서는 '요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석도 우리의 직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일요일'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일요'에다가 '일'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요일의 의미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맞는 것이다.<sup>32)</sup>

따라서 '일요일'의 일차적인 直接構成成分은 (4c)처럼 '일'과 '요일'로 분

32) '일요일'에 대한 이러한 식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예로 이의 음성실현 즉 발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어휘의 발음은 물론 [이료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료]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음은 '일요'의 긴밀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요일'이 '일요+일'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음운론적 정보와 통사의미론적 정보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며 둘째, 음운론적으로 보더라도 위의 사실이 반드시 '일요일'이 '일요'와 '일'로 분석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의 처음의 두 음절은 첫음절말의 '르'에 의하여 그러한 발음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 사이에는 그렇게 연음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분절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록 방언이지만 일부 방언에서 이들을 [이료일] 등으로 발음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이 경우는 분명하게 '일요일'의 첫 음절인 '일'을 분절하여 인식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일요일'에 대한 '일요+일'식의 분석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직관에도 먼저 위와 같이 분석되는 것이 가장 익숙하다. 더욱이 일주일의 각 하루하루인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과의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공통되는 요소와 차이나는 요소를 구분한다면 각각 '일, 월, 화, 수, 목, 금, 토'와 '요일'이 된다. 일차적으로 '일'과 '요일'이 구분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의미를 고려할 때도 우리의 이러한 분석은 타당하다. 즉 '일요일'의 의미는 '요일'의 일차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각 사전의 기술에 있어서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일주일의 하루하루를 설명하면서 모두 '요일의 하나'식의 기술을 보이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일요일'의 의미가 '일'과 '요일'로 일차적으로 성분분석된다는 것을 통하여 제대로 규명되는 것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분석은 이 단어의 생략형이 나타날 때 이들 직접구성성분중의 하나가 선택될 것임을 예상하게 되는데 그 예상을 틀림없다. 실제로 우리는 '일요일'의 생략형으로 '일'을 사용한다. 다음의 경우가 그것을 보여준다.

- (5) a. 우리는 일주일에 월, 수, 금 세번 모인다.  
 a'. \*우리는 일주일에 월요, 수요, 금요 세번 모인다.  
 b. 10월 5일(월) 19:00 진흥재단  
 b'. \*10월 5일(월요) 19:00 진흥재단

(5a, b)에서 밑줄친 곳에 사용된 것은 모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들 대신에 '월요', '수요', '금요'를 쓰면 비문이 된다는 사실은 '일요일'의 준말로 '일'만이 사용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 (4c)의 분석이 타당한 것은 '요일'의 쓰임이 국어에서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다. '요일'이 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는 다음과 같은 예는 '일요일'이 '일'과 '요일'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6) a. 요일마다 할 일을 기록해 놓다.  
 b. 다른 것은 괜찮은데 요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c. 광고문에 낱짜를 쓸 때는 반드시 요일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6a, b, c)는 '요일'이 각각 부사어, 주어,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사용은 국어에서 '요일'이 아무런 제약없이 독립적인 명사로서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요일'이 하나의 의미를 지닌 채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단일어로서 더이상 분석불가능한 형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복합어인 '일요일'을 분석하려면 단일어인 '일'과 '요일'로 각각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2.2.2 日本語의 借用語로서의 '일요'

앞에서 우리는 '일요일'이 일단 '일'과 '요일'로 분석되며 '일요일'의 생략 형으로는 '일요'가 아니라 '일'이 쓰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일요학교'의 경우와 같은 '일요-'식의 복합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그러한 결론은 매우 불충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로 이것이 일본어로부터 차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는 '일요일' 등이 일본어와 관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본어의 차용어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2.2.2 참조) 실제로 박영섭(1992:256-258)에는 '일요일', '월요일', '토요일'이 개화기의 신소설에서 처음 보이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고 있다. 송민(1988:27)에서는 개화기 시대 일본에 다녀온 수신사들의 기록에 日曜日, 土曜日 등이 보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33)</sup> 그 밖에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펴낸 신소설의 어휘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日曜日'와 '日曜日講習會'가 <秋月色>에 각각 4회와 2회씩 사용되었고 '日曜日'이 <鬼의 城>과 <銀世界>에 각각 1회씩 사용되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sup>34)</sup> 이러한 자료들은 이들 요일에 관한 명칭이 그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33) 송민(1988)에서 재인용. 송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현상," 국어생활 14, p. 27 참조

34) 국립 국어 연구원 편, 신소설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993. 참조.

‘日曜’식의 어형은 아예 개화기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주일의 각 날을 가리키는 명칭이 필요했던 개화기 시대 이후에 ‘일요일’ 등이 일본어로부터 차용되어 국어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때 ‘일요’ 등은 국어에 차용되지 않았다. 다만 ‘일요강습회’와 같은 ‘일요-’식의 복합어는 복합어 그 자체로서 차용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추론에는 여전히 한가지 문제가 더 남는다. 만약 ‘일요일’ 등이 차용되었고 ‘일요-’식의 복합어는 이미 일본어에서 만들어져 사용되던 복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면 요즈음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요-’식의 복합어 형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려고 한다. 원래 국어에서는 요일의 명칭과 관련하여 일주일의 구분의 각각에 명칭을 부여하면서 ‘일요일’ 등만을 일본어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일요’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어에서는 ‘일요일’ 등만이 일주일의 각 요일을 가리킬 수 있도록 어휘구조체계가 설정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복합어로서 ‘일요-’식의 복합어들이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나 이 경우는 단지 하나로 어휘화된 것으로서 그들의 분석은 국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후 국어에 ‘일요일’이 ‘일’과 ‘요일’로 분석되는 再構造的인 過程을 거치게 된다. 이런 재구조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요일’이 ‘일’과 ‘요일’의 복합어로 인정되게 되었고 따라서 생략현상과 같은 것도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앞 절(2.2.1)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요즈음 새롭게 일본어의 ‘일요’ 등이 국어의 요일 관련 낱말밭(words-field)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어의 요일과 관련된 어휘체계가 완전히 구조화된 상태에서 일본어로부터 새로운 차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새롭게 이러한 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복합어 형태로 차용되어 우리 국어의 어휘체계 속에 있었던 기존의 ‘일요화가’식의 어휘들의 영향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국어 화자들에게 무의식 중에 ‘일요-’의 형태가 일부 명사에 붙을 수도 있을 것임을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에 그 힘을 보

텐 것은 둘째 이유 때문이다. 즉 현대 일본어로부터의 영향이다. 現代日本語에 보이는 '일요'의 광범위한 機能領域이 한국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일본어에는 다음의 예에서 보이듯이 '일요' 등이 얼마든지 '일요일'의 뜻으로 독립되어 쓰일 수가 있다.

(7) ては, 金曜の夜, 電話をかけます.(그러면, 금요일 밤에 전화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은 국어에서는 그대로 사용될 수 없는 용법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일본어에서는 이와 같이 '금요'가 얼마든지 명사로서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일본어에서의 '금요'의 용법이 국어의 경우보다 매우 넓은 사용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영향이 국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방식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분야 역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즉 앞의 (1나)에 들어놓은 복합어들이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라는 점이다. 방송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을 때 유사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에 일본 신문에 실린 방송 프로그램 안내란에 실린 '일요-'식의 제목을 보면 앞에서 든 국어의 경우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sup>35)</sup>

(8) 月曜ドラマスペシャル(월요드라마스페셜), 火曜ワイド(화요와이드), 火曜 コルテンワイド(화요골덴와이드), 水曜特ハン(수요특판(파노라마)), 木曜ススペシャル(목요스페셜), 木曜洋畫劇場(금요양화극장), 金曜テレビの星(금요텔레비전스타), 金曜ロートショ-(금요로드쇼), 金曜ファミリーラント(금요패밀리라운드), 金曜エンタテイメント(금요엔터테인먼트), 金曜特輯(금요특집), 金曜時代劇傑作選(금요시대극걸작선), 今夜の土曜ワイド(금야의토요와이드), 土曜ワイド劇場(토요와이드극장), 土曜スペシャル(토요스페셜), 土曜映畫劇場(토요영화극장), 日曜洋畫劇場(일요양

35) 이 분석은 물론 이미 재구조화된 상태인 국어의 요일 관련 어휘체계를 바탕으로 해서서는 잘못된 분석이다. 이에 대하여는 2.2.1 참조.

36) 여기의 예는 모두 朝日新聞 1994년 2월 10일자 신문의 방송안내면에서 빌려온 것이다.

화극장), 日曜美術館(일요미술관), 日曜ヒックススペシャル(일요피크스페셜), 日曜シアター(일요시아타(극장))

신문의 경우 '일요신문'이나 '일요판' 등의 사용이 '일요경제'와 같은 신문의 고정란을 가리키는 이름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요컴퓨터동호회'같은 복합어의 경우는 '일요'의 기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 3. 結 論

이제까지 살펴본 '일요-'系 語彙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린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일요-'系 語彙에 대한 사전의 처리는 사전마다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사전 안에서도 기술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 그러한 記述의 非一貫性은 '일요' 등에 대한 처리에서 비롯한다. 여기에서 이들을 독립된 것으로 보아 標題項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 '일요일' 등의 分析 및 記述上의 一貫性 問題, '일요일' 등과 '일요' 등과 '일' 등과의 關係에 대한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마다 다른 처리를 하고 있다. 결국 '일요'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한다고 하겠다.

둘째, '일요일'에 대한 共時的인 分析을 통하여 '일요일'의 一次的인 直接構成成分은 '일'과 '요일'이며, '일요일'의 省略形은 '일요'가 아니라 '일'이 되고 '일요'는 '일요일'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셋째, 결국 '일요' 등은 현재로는 사전에 독립된 標題項으로 등재될 수 없으며 단지 그것과 다른 단어의 복합을 통한 複合語의 형태만이 사전에 표제항으로 등재될 수 있다.

넷째, 현재 확대되고 있는 '일요-'系 語彙의 증가는 일본어에서 새롭게 借用된 '일요' 등의 용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차용에



앞장서는 것이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라는 점이다.

우리는 여러 사전들과 공시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일요-’ 등의 용법이 확대되어 완전히 우리 국어에 정착된다면 그때는 이들도 당연히 국어의 표제어로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각각의 기능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일요일’과 ‘일’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므로 이들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이들 어휘에 대한 국어 화자들의 사용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참고 자료

### 1. 사전류

-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 대제각 영인, 국어국문학총림 44, 45권)  
표준조선말사전(이운재, 1948)  
일한한일대사전(정인섭, 대영출판사, 1976)  
조선어대사전(대판외국어대학교조선어연구실 편, 각천서점, 1986)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73; 도서출판아리랑 영인)  
현대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한자말사전(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흑룡강성조선민족출판사, 1989)  
조선어대사전(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92)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저, 중보판, 1986)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와 3인, 1991)

### 2. 논문 및 단행본

- 국립 국어 연구원 편, 신소설의 언어사용실태 조사, 1993.  
김방한(1990), 어원론, 대우학술총서 46, 민음사.  
남기심, 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박영섭(1992),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도서출판 솔터.  
성광수, 심재기, 최창렬 (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송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1988 가을호).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이익섭, 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